

탈 의료화로서의 대체의학에 관한 논점

최 찬 호*

대구대학교 보건과학부

An Arguing Point on the Alternative Medicine as a Withdrawal Medicine

Chan-Ho Choi*

Department of Public Health Policy and Administration, Daegu University, Korea

Abstract

This study aims to understand trends in alternative medicine use as new therapeutic ways to overcome the limits of western medicine, and is primarily concerned with function of alternative medicine to influence cancer therapy in the United States after 1970s.

Features of oriental medicine and western medicine through the comparison of Quantum medicine and Newton physics are pointed as the basic theory in alternative medicine. Homeopathic medicine, Chiro practice, Aroma therapy, Transcendental meditation, Acupuncture is shortly introduced by alternative medicine use.

The advantage of this study is to gain as follows: Firstly, To be recognized alternative function of cancer therapy by Western nations including United States. Secondly, To understand the integrative program utilized as the alternative ways of cancer therapy in the field. Thirdly, To understand side effects in alternative medicine use. Lastly, To recommend marketing strategies on alternative medicine services to develop Korean health tourism.

In conclusion, it is increasingly emphasized that the importance of alternative medicine in relation to health promotion in the western nations. Western travelers expect that alternative medicine service is attractive and effective as the complementary function on incurable disease. Health tourism to experience alternative medicine services by travel will be expected one of the key industries in the future.

* Corresponding author: Chan-Ho Choi. Department of Public Health Policy and Administration, Daegu University, Korea. E-mail: briandad@hanmail.net. Tel: 82-53-850-5000

Key words : Alternative Medicine, Information Energy Medicine, Mind Medicine, Withdrawal Medicine, Quantum Medicine, Homeopathy, Transcendental Meditation, Acupuncture.

I. 대체의학을 이해하기

탈 의료화로서의 대체의학이란 용어는 1980년대 초반부터 미국을 중심으로 유럽과 일본에서 널리 사용되기 시작하였는데, 미국에서 일반적으로 정의하고 있는 대체의학의 개념은 정통 서양의학이 아닌 일체의 의료행위를 말한다.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한의학도 대체의학에 포함되어질 수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이미 한의학은 제도권 내에 포함되어 있으며, 임상적 과학적으로 완성되고 인정된 학문이기 때문에 대체의학으로 분류하기에는 모순된 점이 있다 하겠다.⁵⁾

서양의학을 '자료중심의 의학'이라고 한다. 이는 서양의학은 일정기간 동안 임상적 경험을 통해서 과학적으로 분석된 자료에 의해서 완성되고 발전된 분석적 학문임을 의미하는 것인데, 분석적인 서양의학은 육체와 마음을 분류하여 분석하는 이원론적 형태로 구성되어 있다.

마음을 치유하기보다는 육체를 과학적으로 세분화시켜 치유해 가는 과정을 서양의학은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지나친 육체의 세분화는 외과적 수술의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으나, 자연 및 심적 상태에서 생성되는 자연치유력인 면역기능의 향상을 가져올 수 없다는 점이다. 서양의학의 단점이 바로 질병의 치료를 위해서 요구되고 있는 내적자원이라 할 수 있는 자연치유력을 생성시킬 수 없다는 점인데, 대체의학의 핵심적 내용은 서양의학을 대신하여 보충적으로 자연치유력을 생성시킬 수 있

다는 점이다.

이런 점에서 대체의학(Alternative Medicine)을 보충의학(Complementary Medicine)이라고도 하는데, 미 국립보건원(National Institute of Health, NIH)은 둘을 합쳐 보충대체의학(Complementary and Alternative Medicine, CAM)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다.

1971년 닉슨 대통령이 암 퇴치를 위해 '암과의 전쟁'을 선포한 바 있는데, 닉슨 행정부는 암 치료를 위한 임상적인 투자와 적극적인 관심이 이루어진다면 암을 비롯한 불치의 질환은 치유될 것이라고 믿었던 것이다. 그러나 그동안 300억 불 이상의 막대한 공적 자금과 비공적 자금이 지원되고 있지만, 암을 치유할 수 있는 특별한 성과는 나타나고 있지 않으며, 최근 미 국립보건원(National Institute of Health, NIH) 산하의 암센터 보고서는 1973년부터 1992년까지의 미국에서 암 사망률은 오히려 전반적으로 상승한 것으로 지적하고 있다.

1980년대를 기점으로 미국의 암환자와 그 가족들은 정부의 이러한 정통의학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에도 불구하고 암에 대한 소기의 치료효과를 보지 못하게 되자, 정통의학이 아닌 비정통의학에 의존하기 시작하였다. 비로소 미국인들은 정통의학으로서의 서양의학이 외과수술이나 응급외상치료에는 효과적이지만, 인체의 자연치유력에 의해서 치료효과를 증가시킬 수 있는 암이나 만성질환에는 효과적이지 못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이다.

서양의학은 그동안 분석적, 과학적, 합리적인 사고와 임상에서 얻어진 자료를 중심으로 인간의 질병을 국부적인 차원에서 치료해 왔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이러한 서양의학의

기초 위에서 인간의 질병 치료효과를 배가시키기 위해서는 총체적인 치료접근법의 개발이 필요하다는 것을 최근 들어 미국과 유럽사회는 강하게 인식하고 있는 추세이다.

미국의 경우, 1990년에 여러 가지 중증질환을 치료하기 위하여 대체의료기관을 방문한 환자 수는 연인원 4억 2,500여 만 명 이상이었고, 대체치료에 소요된 비용만도 137억 불을 기록하였다. 1997년에는 대체치료에 소요된 비용이 무려 45%가 증가한 약 300억불을 기록함으로써 커다란 대체의료시장을 형성해 가고 있다.³⁾

특히 암을 극복하기 위하여 대체요법의 의존율이 급상승하면서 '탈 의료화현상'이 가속화되고 있다. 예를 들면, 1999년 유방암 수술을 받은 환자들 중 약 28%가 대체요법을 사용한 적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2002년에는 약 73% 이상이 대체요법을 사용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와 같은 '탈 의료화현상'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1990년 이후부터 대체의학을 연구, 수행, 자문하기 위하여 전담 행정기구가 발족되기 시작하였는데, 대표적인 전담부서로서는 국가대체의학연구센터(National Center for Complementary and Alternative Medicine, NCCAM), 국가대체의학자문회의(National Advisory Council for Complementary and Alternative Medicine, NACCAM), 백악관 대체의학 정책위원회(White House Commission for Complementary and Alternative Medicine Policy, WHCCAMP) 등이다.

특히 1992년에 미 국립보건원 산하에 대체의학과(Office of Alternative Medicine, OAM)를 설치하였으며, 이를 1998년에 다시 국가대체의학연구센터로 확대개편하면서 체계적으로 폭넓은 대체의학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는데, 1992년 설치 당시 대체의학과와의 자체예산 배정이 약 200만 불에서 현재 9,000만 불로 급격하게 증가하여 '탈 의료화현상'의 가속화를

보여주고 있다.

미국의 대체요법 연구는 주로 대학과 연계하여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 존스홉킨스대학을 비롯하여 현재 미국의 120여개의 과대학 중 90여개 대학 이상이 1개 이상의 대체의학에 관한 과목을 정규과목으로 채택하고 있다. 현재 존스홉킨스 의대를 비롯한 10여개 대학이 NCCAM 대체의학 연구기관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암, 관절염, 심장병 등 300여개의 개별적인 연구 프로젝트가 대체의료와 관련하여 진행되고 있다.²⁾

독일 및 호주 등의 경우에 있어서도 '탈 의료화현상'은 가속화되고 있다. 독일은 서양의학의 효율성에 대한 논란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오다, 마침내 1976년에 새로운 의료법이 통과되어 대체요법을 본격적으로 제도적인 차원에서 다루기 시작하였으며, 암환자의 약 40%, 중증질환자의 약 83%가 대체요법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호주는 암환자의 약 22%, 중증질환자의 약 50% 정도가 대체요법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으며, 약 200만 불 정도의 약초시장이 형성되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특히 호주 의사의 약 6분의 1 정도가 대체의학에 깊은 관심을 나타냄으로써 향후 대체의학에 대한 제도권 내에서의 연구가 활성화되리라 예측된다.

우리나라의 경우, 2000년 대한암학회지의 발표에 의하면, 암환자의 약 58%가 서양의료와 대체요법을 병행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으나, 대체의학을 전담하는 행정부서는 전무한 상태이다. 그러나 2001년 대체의학을 체계적으로 연구하고, 전문인력을 양성할 목적으로 포천중문의과대학교 대체의학대학원의 개원을 시발로 2002년 경기대학교 대체의학대학원이 개원됨으로써 제도권내에서 대체의학의 체계화에 점진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추세이다.

II. 대체의학의 이론적 배경

1. 뉴턴물리학과 서양의학

서양의학의 역사적인 발전배경은 17세기 뉴턴물리학에 의해서이다. 유물론적 우주관에 의해서 우주의 형태를 설명하고 있는 뉴턴물리학은 현대의학의 생의학적 이론의 배경이 되었다.

뉴턴물리학이 현대의학의 형성에 영향을 미친 주요 이론적 근거를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뉴턴물리학에 의하면 우주는 작은 입자인 물질로 구성되어 있는 절대적인 공간으로서 외부적 요소에 의해서 영향을 받지 않는 항시 정지되어 있는 독립된 상태와 같다. 따라서 서양의학에서는, 인체는 보일 수 있는 물질로서만 구성되어 있으며 다른 외부적인 환경요인이나 눈으로 볼 수 없는 마음, 에너지, 정신현상 등과는 상호 관련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보고 있다.

둘째, 전체현상은 부분의 합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전체현상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과학적인 면밀한 부분의 분석을 통해서 점진적으로 전체현상을 이해할 수 있다고 뉴턴물리학은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현대의학은 신체 구조를 장기, 조직, 세포, 그리고 유전자순으로 구분하여, 유전자의 분석을 시작으로 세포, 조직, 장기의 분석을 통해서 신체에 나타나는 전체현상을 이해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셋째, 뉴턴물리학은 전체의 합은 독립된 개체의 합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보았다. 따라서 서양의학은 인체의 구성물질을 독립된 개체의 합으로 보았다. 그러므로 질병이 발생했을 경우, 문제가 발생한 개체로서의 특정부위를 집중적으로 치료하여 전체의 합이라 할 수 있는 인체의 정상적인 기능의 환원에 노력하였다.

넷째, 뉴턴물리학에 의한 우주의 구성물질은 기계적인 기능에 의해서 작동하는 역동적인 물질로 보았다. 따라서 서양의학은 인체의 구성물질을 기계단위로 보았는데, 인체에 질병이 발생했다는 것은 기계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못한 것으로 여겨 의사는 부서진 부분의 기계를 집중적으로 수리하여 정상적인 기능으로 환원시키는 기술자로 분류하였다.

기계론적 유물론에 의한 뉴턴물리학의 완성과 함께 시작된 서양의학은 위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인체를 장기, 조직, 세포, 유전자로 구성되어진 눈으로 볼 수 있는 물질로만 구성되어져 있는 것으로 보았으며, 눈으로 볼 수 없는 부분인 마음과 정신세계를 제외시킴으로써 인체의 구성을 물질적인 것과 비물질적인 것으로 이분화하여 사고하는 이원론적 관점에서 이해하였다.

뉴턴물리학에 근거한 서양의학의 이론적 전개로 인해서 그동안 외과수술의 비약적인 발전과 세균설에 의한 전염성 질환의 규제에 대한 탁월한 업적은 부정할 수 없으나, 이원론적 접근방법에 의한 서양의학은 그 한계를 나타내고 있음을 동·서의학 모두 인정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인체의 장기를 뉴턴물리학의 체계적인 지식의 완성에 의해서 완전하게 이해하고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질병을 치료하기 위한 국부적인 접근 방법일 뿐 전인격적인 치료방법이 될 수 없다는 것이 대체의학을 연구하는 학자들의 일반적인 견해라 할 수 있다.

질병의 발생은 세균에 의한 장기의 이상에 의해서 발생하기도 하지만 보이지 않는 에너지의 힘과 같은 마음의 변수에 의해서도 발생하기도 한다. 특히 암, 고혈압, 당뇨 등과 같은 만성질환은 마음, 정신과 같은 내적 상태를 포함하는 복합적인 요인에 의해서 발생하기 때문에 이원론적 접근방법을 통해서 치료의 효과를 달성하기에는 그 한계가 있다 하겠다.¹¹⁾

2. 양자의학(Quantum Medicine)과 대체의학

뉴턴물리학에 의한 서양의학은 인체의 구조를 기계적인 상태, 환경외적 상태, 그리고 내적 상태의 배제로 분석한 결과, 질환의 치료를 전 인격적인 관점에서 이해한 것이 아니라 국부적이고 외과 중심적으로 이해함으로써 내적 갈등 상태에서 발생하는 질환을 효과적으로 치료하는데 그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이러한 뉴턴물리학에 의한 서양의학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대체요법의 이론적 근거를 양자의학에서 찾을 수 있는데, 양자의학은 인체를 구성하고 있는 물질인 장기 등의 요소 이외에 보이지 않는 요소인 마음, 정신적인 측면의 갈등까지도 분석하여 전인격적인 치료에 도움이 되는 이론을 제공하고 있다.

1) 양자의학의 특징

양자의학은 뉴턴물리학이 설명할 수 없는 인체내의 보이지 않는 힘인 정보-에너지를 찾아 이를 질병치료에 활용하려는 이론을 전개하고 있는데, 질병치료와 관련된 이론적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총체적 관념

양자의학은 인체의 구성을 다음과 같이 크게 3부분으로 분류하여 총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첫째, 인체를 구성하고 있는 장기, 세포와 같이 보이는 물질을 다루는 생의학(Bio-medicine), 둘째, 인체의 보이지 않는 무형의 힘을 다루는 정보-에너지(Information-Energy) 의학, 셋째, 정신과 마음을 다루는 심성의학(Mind-medicine)을 양자의학의 핵심부분으로 삼고 있다.

양자의학은 크게 인체를 물질상태와 비물질

상태로 구분하고 있다. 전자는 인체를 보이는 물질로 세분화하여 설명하고 있는데, 인체를 구성하고 있는 최종단위인 장기는 조직으로, 조직은 세포로, 세포는 분자로, 분자는 원자로, 원자는 에너지로, 에너지는 파동으로 세분화하여 설명하고 있다. 분자까지는 눈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장기, 조직, 세포, 분자를 생의학의 대상으로 삼고 있다.

후자는 눈으로 볼 수 없는 상태를 말하는데 두 가지 형태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다. 하나는 분자에서 더 세분화된 원자나 파동과 같은 소립자는 눈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이를 정보-에너지의학의 대상으로 삼고 있으며, 다른 하나는 정신과 마음을 심성의학의 대상으로 삼고 있다. 양자의학은 이와 같이 인체를 3측면에서 이해하여 질병의 원인과 치료를 3중구조의 원리에 의한 총체적인 관점에서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2) 전인격적 관념

양자의학은 환자를 의료의 중심에서 사고한다. 질병치료에 개입할 때 인간과 환경과의 관계를 중요시하고, 환자의 보이지 않는 내적 힘에 의한 자연치유력을 중요시하여 환자의 개성과 인격에 기초한 전인격적인 치유개념의 특징을 강조하고 있다.

(3) 유기체적 관념

양자의학은 인체를 단순한 기계적 기능으로 분석하지 않고, 정신과 마음이 포함된 유기체적 기능으로 분석하여 정신과 마음에 의한 질병의 발생을 인식하고, 정신과 마음에 의한 치료방법을 중요시하고 있다.

2) 양자의학의 대체요법기능

(1) 암세포 및 세균치료

독일의 물리생물학자인 포프(F. Pope)는 발

암물질들은 고유의 정보-에너지장을 가지고 있으며 이를 분석하면 암의 원인과 치료를 규명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영국의 생물학자인 클라크도 인체의 세균과 바이러스도 고유의 정보-에너지장을 가지고 있어 이를 분석하면 질병을 효과적으로 치료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2) 영적 치료

환자를 치료하는 시술자는 특별한 훈련에 의해서 영적인 능력을 터득하여 이를 환자의 영의 세계에 적용하면 시술 없이도 환자의 자연치유력을 향상시켜 치료효과를 높일 수 있다고 양자의학은 주장하고 있다. 이는 질병의 원인과 치료를 정신과 마음에서 찾으려는 양자의학의 한 특징을 설명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3) 기치료

양자의학은 인체내에 원만히 흐르던 정보-에너지가 특정부위에 정체되어 있으면 그 주변부위의 근육이 굳어지고 혈액순환의 이상이 생겨 질병이 발생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경우에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정보-에너지의 흐름을 원활하게 해 주는 대체요법의 하나인 물요법이 필요하다고 양자의학은 강조하고 있다. 즉 온천욕, 뜨거운 물 속에서의 마사지, 스팀방, 사우나 등에 의한 물요법을 양자의학은 권장하고 있다.

(4) 파동치료

양자의학은 인체내의 정보-에너지장은 일종의 파동으로 존재하고 있다고 보고 있으며, 외부의 파동을 가함으로써 인체내의 파동과 공명(共鳴)을 발생하게 하여 질병을 치료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예를 들면, 인체내의 파동과 교감할 수 있는 음악이나 자연의 소리 등을 들려주면 인체내의 파동과 공명을 일으

켜 질병을 치료할 수 있다고 한다.

Ⅲ. 대체요법의 분류

각 나라에서 오랜 기간 전통적으로 사용되어져 온 수많은 대체요법을 찾아 모두 분류하여 이해하기란 매우 어려운 일이다. 일반적으로 양자의학의 이론 적용에 대한 가능성을 중심으로 대체요법을 분류하면 약 200여 가지 이상 존재하지만, 실제 활용되어지고 있는 대표적인 대체요법으로는 동종요법, 카이로프라틱, 최면요법, 명상요법, 요가, 생약요법, 식이요법, 자연치료요법, 심령치료요법, 수치료, 기공치료요법, 아로마치료 등을 들 수 있는데, 여기에서는 카이로프라틱, 동종요법, 아로마요법, 명상요법, 침술요법, 생식요법 만을 간략히 살펴봄으로써 양자의학에 기초한 대체요법의 기본적인 특징을 이해하고자 한다.

1. 카이로프라틱

카이로프라틱의 용어는 그리스어의 손을 의미하는 카이로(Chiro)와 치료를 뜻하는 프락토스(Practice)의 합성어이다. 즉 약과 수술에 의존하지 않고, 단지 손의 감지능력에 의해서 현대의술로 치료가 어려운 척추분야의 여러 질환을 자연치유하는 대체요법이다.

첫 카이로프라틱의 시작은 1895년 미국의 데이비드 파머(D. D. Palmer) 박사에 의해서 이루어졌으며, 그후 교육적인 발전과 시술이론의 눈부신 발전이 이루어져 현재에는 60여개 이상의 국가에서 정규교육체계를 갖추어 전문적인 시술사를 양성하고 있다.

카이로프라틱은 총체적접근 방법에 의한 치료행위인데, 인체의 기능을 전체적인 관점에서 파악하고, 이를 통해 인체의 자연면역기능을 향상시켜 질환을 치유하는 자연치유법이다. 특

히 신체의 운동역학적기능을 가진 조직인 척추와 골반을 중심으로 이들 조직 및 주변조직의 기능적 장애에 대한 병리, 진단, 치료를 통해 통증을 예방, 완화시키려는 목적을 지닌 대체의료행위이다.

정통의학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 미국에서 카이로프라틱은 일찍부터 제도권내에 흡수되어 대체의학의 정통성을 인정받아 '탈 의료화 현상'을 주도하고 있다.

미국은 카이로프라틱 전문의(Doctor of Chiropractic)제도를 두고 있는데, 전문의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카이로프라틱 의대에서 6년 동안 총 4,500여 시간의 수업을 이수해야 한다. 현재 약 4만 5천여 명의 전문의가 배출되어 특수 척추분야의 질환을 예방하고 치유하기 위한 대체의료행위를 수행하고 있다.

서양의학이 정통의학으로서 정착화되어 수 치료가 외면당하고 있는 대부분의 나라들에게 미국의 이러한 제도권 내에서의 카이로프라틱의 위상은 수치료에 대한 중요성을 이들에게 일깨워 줄 수 있는 확고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우리나라의 경우에 있어서도 카이로프라틱을 위한 전문적인 교육시설이 전혀 없는 상황에서 지압, 안마, 접골 등의 수치료행위가 제도적 차원에서 무시되고 외면당하는 현실을 감안할 때 미국의 제도권내에서의 카이로프라틱의 위상은 좋은 교훈을 시사하고 있는 것이라 볼 수 있다.

2. 동종요법

동종요법은 19세기 중엽에 서양의학의 치료 효과에 비판적이었던 독일의 하네만(Samuel Hahnemann)에 의해서 개발된 유사대체요법이다. 하네만은 질병의 발생은 인체의 기능에 교란이 발생하여 나타나는 것으로 보았다. 그는 인체는 내부의 교란상태를 정상적으로 회복시

킬 수 있는 자연적인 힘이라 할 수 있는 생기를 자연적으로 생성할 수 있는 구조로 이해하였다. 그러므로 소량의 원소에 해당하는 약물을 투여하면 인체내의 생기를 자극하여 체내의 세포를 활성화시킴으로써 교란상태가 평정되어 건강을 회복할 수 있다고 보았다.

하네만은 건강할 당시, 우연히 말라리아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입증된 키나피를 과량 복용한 적이 있었는데, 이때 그는 말라리아에서 나타난 유사한 경험을 하게 되었다. 이와 같이 정상인에게 어떤 물질을 과량 복용하여 나타나는 질병의 증상과 유사한 증상을 보이는 환자에게 역으로 소량의 물질을 투여하면 치료될 수 있다는 유사성의 법칙을 착안하였으며, 그의 '의학체계'에 동종요법이라는 용어를 처음 사용하였다.

하네만은 약초, 광물, 또는 다른 물질들을 건강한 사람에게 투여하고, 그 결과 나타나는 증상들을 자세하게 기록한 '물질의학'이라는 참고문헌을 완성하였는데, 이를 기초로 비슷한 증상을 보이는 환자에게 극소수의 물질을 희석시켜 투여함으로써 질병에 대한 치료효과를 검증한 바 있다.

미국의 식품, 의약품, 화장품법(Food, Drug, and Cosmetic Act)은 동종요법제품의 제조와 판매를 인정하고 있으며, 생체동종요법제조회사(Biological Homeopathic Industries, BHI)를 중심으로 다수의 동종요법제조사가 활동하고 있다. 카이로프라틱의 시술사가 동종요법을 동시에 수행하고 있는데, 이들 중 약 25%가 동종요법 제품을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3. 아로마요법

아로마요법은 향을 의미하는 아로마(Aroma)와 치료(Therapy)의 합성어으로써 각종 자연식물로부터 추출된 정제된 향과 오일을 이용해

Table 1. Alternative Medicine and Aroma

구분	증상	적용 가능한 아로마
신경정신과	우울, 불면, 신경쇠약, 불안, 편두통, 자폐증 등	바질, 벤조인, 버가못, 클러브 버드, 사이프러스, 유칼립투스, 프랑킨 센스, 그레이프 후르트, 자스민, 클라리 세이지, 캐모마일, 베라늄, 베티버, 주니퍼베리, 라벤더, 마조람, 레몬, 로즈, 로즈마리, 로즈우드, 메들리, 오렌지스워드, 팔마로사, 페퍼민트, 파인, 샌달우드, 일랑일랑 등
호흡기	기관지염, 천식, 폐렴, 알레르기성 비염, 감기, 축농증 등	바질, 버가못, 시다우드, 유칼립투스, 캐모마일, 사이프러스, 그레이프 후르트, 라벤더, 페퍼민트, 마조람, 파인, 블랙페퍼, 타임, 프랑킨 센스, 레몬 등
순환기	빈혈, 동맥경화, 정맥류, 치질, 고혈압, 심장질환, 저혈압, 부종, 협심, 체액정제 등	바질, 벤조인, 버가못, 블랙페퍼, 클라리 세이지, 사이프러스, 라벤드, 제라늄 그레이프후르트, 자스민, 마조람, 주니퍼베리, 캐모마일, 지저, 로즈, 로즈마리, 페퍼민트, 타임, 레몬, 히습, 유칼립투스, 네들리, 파츠올리, 일랑일랑 등
소화기	소화불량, 변비, 오심, 십이지장염, 위궤양, 궤양성 대장염, 담낭염 등	페퍼민트, 레몬, 라벤더, 카라웨이, 진저, 티트리, 주니퍼베리, 로즈, 로즈마리, 캐모마일, 마조람, 오렌지, 코리앤더, 샌달우드, 제라늄, 레드 그레이, 멀 등
성인병	비만, 당뇨, 뇌졸중, 동맥경화	라벤더, 그레이프후르트, 바질, 버가못, 네들리, 주니퍼베리, 사이프러스, 일랑일랑, 마조람, 로즈, 로즈마리, 히습, 제라늄, 진저, 코리앤더, 프랑킨센스 등
근육, 골관절	관절염, 요통, 신경통, 근육통 등	클로브 버스, 라벤더, 로즈마리, 페퍼민트, 유칼립투스, 캐모마일, 마조람, 주니퍼 베리, 타임, 진저, 헨넬, 사이프러스, 버가못 등
산부인과	폐경기 중후군, 생리전후 중후군, 리관적 질염, 생리통, 원활한 분만과 산후 조리	클라리 세이지, 제라늄, 로즈, 헨넬, 주니퍼베리, 버가못, 자스민, 사이프러스, 마조람, 페퍼민트, 네들리, 레몬, 샌달우드, 티트리, 타임, 시나몬, 캐모마일, 시아우드, 코리앤더, 클로브 버드, 유칼립투스, 라벤더, 레몬글라스, 파인, 로즈우드, 일랑일랑 등
비뇨기과	전립선 질환, 방광염, 성기능 장애 등	라벤더, 파인, 캐모마일, 시다우드, 사이프러스, 유칼립투스, 타임, 시나몬, 크로브버드, 코리앤더, 헨넬, 프랑킨센스, 제라늄, 그레이프후르트, 주니퍼베리, 자스민, 파츠올리, 레몬, 일랑일랑, 네들리, 로즈 파인, 로즈마리, 로즈우드, 샌달우드, 베티버 등

출처 : <http://www.worldaroma.ac.kr>

신체적, 정신적인 질환을 예방, 치료하는 자연 치료 대체요법을 말한다.

아로마요법의 본격적인 시작은 1920년대의 프랑스의 화학자인 르네 모리스 가뜨포세(Rene-Maurice Gattefosse)에 의해서이다. 그는 향수 회사에서 일을 하던 중 라벤더에서 추출된 오일의 탁월한 화상치료효과를 본인 스스로 경험한 이후, 본격적으로 향에 대한 연구를 거듭

한 결과, 식물로부터 추출된 정제된 오일로부터 소독, 살균, 진정, 소염 효과 등이 탁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정제된 오일은 과일, 화초, 나무, 진액, 뿌리, 잎, 열매, 향료 등으로부터 추출된 100% 순수한 정유를 의미한다. 정제된 오일은 흡입, 습포(濕布), 목욕, 족욕, 마사지, 아로마포트(방향기), 스프레이 등의 방법을 이용하면 피부 깊

속하게 침투되는데, 이로 인해서 뇌신경계와 운동기능계에 자극을 주어 세포활동을 활성화 시킴으로써 자연치유력을 향상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4. 명상요법

명상요법은 정신집중을 통해서 뇌의 이완상태를 유도하여 질병을 예방하고, 건강을 유지하려는 대체요법 중의 하나이다. 스트레스, 공포, 불안, 근심 등의 내적 갈등은 신체의 균형을 잃게 하여 질병을 유발하는데, 명상요법은 스트레스를 유발시키는 호르몬인 코티졸을 낮게 하고, 뇌의 알파 파장을 증가시킴으로써 질병에 대한 치료효과를 증가시킬 수 있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인도의 수도사들을 중심으로 오랫동안 내적 건강상태를 유지하는 수단으로 이용되었던 명상요법은 1960년대를 기점으로 서양에 전파되기 시작하여 미국을 중심으로 유럽사회에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다.

서양의 정통의술은 스트레스성 정신질환을 치료하는 약물치료의 부작용을 해결하는데, 한계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미국을 중심으로 자율신경계와 심적 조절기능의 효능을 가져올 수 있는 명상요법을 보완적으로 활용하려는 움직임이 점진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명상요법에 대한 임상실험이 미국과 유럽을 중심으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데, 미국의 하버드대 연구팀은 인도 수도승의 명상 전·후를 관찰해 본 결과, 명상 전에 비해서 명상 후의 호흡수와 산소소비량이 현격하게 줄었으며, 뇌의 알파 파장도 크게 증가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오스트리아의 아인슬리 메레스(Ainslie Meares)가 73명의 암환자를 대상으로 명상요법의 효능에 관한 연구를 수행한 바 있는데, 그 결과를 살펴보면, 모든 암환자에게서 암으

로 인한 불안과 공포가 감소하였고, 10%는 암의 성장효과가 감소하였으며, 50%는 삶의 질의 향상을 나타내어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나타났음을 확인하였다.

5. 침술요법

동양의 전통의학은 질병의 발생을 기이론에 기초한 음과 양의 관계에서 찾고 있다. 즉 인체는 음과 양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과학적으로 입증되지 않은 기가 흐르고 있다고 보고 있다. 음과 양의 조화가 이루어지면 원만한 기의 흐름이 이루어져 원만한 신체적 기능이 이루어지는데, 만약 음과 양의 부조화가 이루어지면 기의 흐름이 막혀 신체적 기능의 조화는 상실하게 되어, 결국 질병이 발생한다고 보고 있다.

침술은 이와 같이 경락을 통해 전신을 흐르고 있는 기의 차단된 지점을 찾아 자극함으로써 음과 양의 조화를 형성하여 기의 흐름을 원활하게 해 주는 것으로서 약 2,000여 년 전부터 중국을 중심으로 아시아 대부분의 국가들의 전통치료행위로서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해 오고 있다.

침에 의한 경락의 자극은 중추신경계에 전달되어 근육, 척수, 뇌에서 호르몬을 생성하게 하고, 혈압, 혈류, 체온을 조절하게 한다. 또한 시상하부와 뇌하수체를 활성화시켜 신경전달물질과 신경호르몬에 변화를 제공함으로써 면역세포를 가져와 자연치유력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입증되고 있다.

1970년 전까지만 해도 서양에서는 침술이 서양의술과는 전혀 다르고, 침술학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혈류가 흐르는 경락의 구조가 서양의술의 혈관의 구조와는 전혀 다르기 때문에 침술의 효능을 전혀 인정하지 않으려 했다. 그러나 1971년 닉슨 대통령이 중국을 방문했을 때, 중국의 침술사들이 기내에서 그의 수행원

Table 2. Classification of Alternative Medicine

분류	종류
서양의학에 밀접한 대체의학	최면요법, 산소요법, 꿈치료요법, 신경치료, 족부의학(Prodiatric Medicine), 정골의학(Osteopathic Medicine), 척추교정의학, 에너지요법, 영양요법, 환경요법, 마술요법, 오락요법, 무도요법, 증금속제거요법 등
동양의학에 밀접한 대체의학	명상요법, 요가, 기공치료, 생약요법, 꽃요법, 봉침요법, 심령치료법, 자연치료요법, 수지치료 등
동·서양의학 접목형 대체의학	동중요법, 식이요법, 주스요법, 장요법, 수치료, 고열요법, 양지의학, 뇨료법 등

출처: 한국대체의학회, 2002

들에게 침술을 제공하면서부터 본격적으로 서양에 소개되기 시작하여, 현재에는 미국을 중심으로 대체요법으로서 널리 확산되고 있는 추세에 있다.

하버드 의대 오셔연구소는 암치료를 위한 대체요법의 효능을 6개 범주로 나누어 임상실험을 시도한 결과, 침술이 가장 효능이 탁월한 것으로 발표하였다. 미국 식품의약청(Food and Drug Administration, FDA)은 침술행위를 잠정적으로 인정해 주고 있으며, 1997년 미국 국립보건원(National Institute of Health, NIH)은 공식적으로 침술의 의학적 효과를 발표하였고, 알래스카, 캘리포니아 등 19개 주에서는 침구사를 독립적인 진료자로 인정하고 있어 침술을 제도권내에서 인정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6. 생식요법

생식요법은 자연계에서 생산되는 곡류, 채소, 과일 등을 열을 가하거나 인위적인 가공 상태에서 섭취하는 것이 아니라, 건조된 신선한 자연상태에서 이들을 섭취하여 신체의 면역상태를 증가시키는 자연치유요법이다.

동의학에서는 질병의 원인을 식원병(食源病)이라하여 음식이 질병을 야기하는 원인으로 보았다. 특히 암, 당뇨, 고혈압의 발생은 음식

의 섭취와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동·서의학은 동시에 지적하고 있다.

양자의학(Quantum Medicine)은 생식요법과 관련하여 음식을 인체에 해로운 음식과 유익한 음식으로 구분하고 있다. 음식물은 고유의 정보-에너지장을 가지고 있는데 해로운 음식을 섭취하면 그 속에 포함되어 있는 유해한 정보-에너지장이 인체의 장기, 조직, 세포 등에 존재하고 있는 정상적인 정보-에너지장을 교란시킴으로써 질병을 유발한다고 보았다.

IV. 탈(脫) 의료화로서의 암 대체요법

‘탈 의료화’란 서양의학의 한계를 인식하고 그 기능을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유형의 치료요법을 의미한다. 서양의술의 한계의 표면화에 의해서 나타난 대체요법은 사회적 욕구와 환자의 욕구를 동시에 포함할 수 있는 ‘탈 의료화’의 한 단면으로 지적되고 있다.⁷⁾

특히 암은 의료적 측면에서 사회적 욕구와 환자의 욕구를 동시에 강하게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작용하고 있다. 선진제국들은 앞다투어 암을 정복하기 위한 임상실험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으나, 여전히 암은 국·내외적으로 가장 심각한 질병의 하나로서 정통의학이 해결해야 할 의료사회학적 과

Table 3. 7 Alternative Medicine of American Cancer Association

분 류	내 용
신체적 활동	지압술, 알렉산더 요법, 카이로프라틱, 물 요법, 마사지, 태극권, 요가, 심상요법 (Mind Therapy)
감각적 운동	아로마요법, 예술요법, 무용요법, 유머 치료법, 음악 치료법
식이 및 한방요법	식이요법, 단식주스 요법, 꽃요법, 채식요법
심리적 치료법	바이오 피드백, 최면술, 명상요법, 위약(placebo)효과, 기공
생물학적 치료법	에시약(캐나다의 간호사 르네 카세카 창안), 켈레이션 요법, 안티네오플레스톤 요법, 오존 요법, 과산화수소 요법
외부 에너지 힘	크리스탈 요법, 전자기 치료법, 신앙 치료법, 광선 요법, 샤머니즘, 기도 및 심령술, 안수 치료
전통적 치료법	침술, 중국의학, 전통 동종 요법, 인도의 아올베다, 자연 요법, 미국의 전통 요법

출처 : <http://www.famousdoc.org/tidaiyixue.htm>

제로 남아 있다.

암으로 인한 사망자 수의 증가와 함께 의료비 지출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인데, 미국의 경우, 1999년 암비용에 소요되는 직·간접적인 비용은 1,000억 달러가 넘는 것으로 미국 국립보건원은 주장하고 있다.⁶⁾ 이러한 암 발생으로 인한 소중한 인명의 피해와 함께 경제적 손실을 대체요법에 의한 '탈 의료화'의 기능을 통해서 해결하려는 움직임이 미국을 중심으로 최근에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미국 정부는 암을 극복하기 위해서 1992년 보완의학연구센터를 국립보건원 산하에 설치하는 등 제도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암환자들은 정통의학이 아닌 대체요법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추세에 있는데, 이는 '탈 의료화 현상'을 가속화시키는 요소라 할 수 있다.

사회적 기능의 일탈현상으로서의 '탈 의료화'는 인간의 잠재적인 본능의 심리적 발현에 의해서 나타난다. 암환자는 여러 가지 내적 갈등을 경험하는데, 그 중에서도 '자기통제력'의 상실을 들 수 있다. 서양의술이 해결하지 못하는 질병에 감염된 사람은 두려움과 공포에 사로잡히게 되고, 자신을 관리할 수 있는 '통제기전'을 상실하게 된다. 통제기전의 상실은 결국

서양의학의 사회적 기능을 부정하고, 모든 제도권내의 의료현상에 대해서 신뢰를 거부함으로써 사회적 일탈로 이어지게 된다.

'사회적 일탈'이 소수에 의해서 행해질 때 그 행위는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와 사회적 역기능으로 작용하나, '사회적 일탈'이 다수에 의해서 잠정적인 행위로 나타난다면 역기능이 아닌 순기능으로 나타나는 사례가 있다. 암치료를 위한 대체적 기능의 인식이 확산되기 이전에는 대체요법의 기능을 사회적 역기능으로 분류하였지만, 점진적으로 확산되면서 제도권과 비제도권간의 경계를 모호하게 하여 순기능적 역할로 분류하고 있는 추세가 대표적인 경우라 할 수 있을 것이다.

환자와 의사가 암 치료의 대체적 기능을 포괄적으로 인정함으로써 대체요법이 사회적 순기능으로 나타나면서 정통의학과 대체의학의 통합적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는 추세이다.

미국의 일리노이의 시온병원과 오크라호마의 톨사병원, 버지니아의 햄플턴 로드병원, 독일의 페라메드 및 프리데미일러 병원 등을 포함한 많은 유명한 암 전문 병원들이 암 치료를 위해서 환자에게 서양의학과 대체의학을 병행하고 있음은 제도권내의 서양의술이 탈

의료화를 이루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사례이다.^{5,6)}

제도권내에서의 ‘탈 의료화’를 위한 시스템은 통합모형과 협력모형으로 분류할 수 있다. 전자는 동일한 건물내에서 정통의사와 대체의료 종사자가 함께 협력하여 통합적 의료행위에 개입하는 형태이다. 대표적인 통합모형을 수행하고 있는 병원은 미국의 메모리얼 슬로운 케터링 암센터의 통합의료 프로그램(Integrative Medicine Program, IMP)을 들 수 있다.

이 프로그램은 대체적 기능을 포괄적으로 포함하고 있는데, 마사지요법, 영적 치유, 미술과 음악치유, 최면요법, 명상요법, 요가 등 다양한 대체적 기능들을 동원하여 환자와 그 가족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다른 병원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1999년 통합모형을 시도한 병원이 약 11%에서 2002년에는 약 16%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후자는 동일한 건물내에서 또는 연결망을 통해서 정통의사와 대체의료 종사자가 환자의 치료를 위해서 상호간의 의견교환과 충고가 이루어지는 형태를 말한다.

‘탈 의료화’는 기존의 정통의료체계의 한계를 극복하고, 사회적 의료욕구를 충족시키려는 비제도권의 변형된 의료체계이므로 지역과 시대적인 공간을 두고 차별적인 사회적 위험성이 존재한다. 오늘날 제도권 또는 비제도권내에서의 ‘탈 의료화현상’의 가속화는 검증되지 않은 대체적 기능의 위험성이 환자나 그 가족에게 내재해 있기 때문에 환자는 현재의 신체적, 정신적인 병리상태를 기초로 과학적인 대체요법의 선택이 필요하다 하겠다.

미국은 미국암협회(American Cancer Society, ACS), 미국임상종양학회(American Society of Clinical Oncology, ASCO), 건강사기방지국가위원회(The National Council against Health Fraud) 등이 수많은 ‘탈 의료화’의 부정적인 측면으로부터 환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는데, 이는 대체요법의 사회적 기능에 대한 적응력을 향상시켜 환자의 권익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V. 결론 및 제언

앞으로 미래사회는 광속의 속도 만큼 빠른 속도로 변모해 갈 것이며, 이러한 변화는 눈부신 과학의 발전에 의해서 이루어질 것이다. 이제 과학의 역량은 사회 일부분에 적용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회 전반에 걸쳐 골고루 적용되어져 과학은 일상생활을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여겨질 것이다. 그러나 아무리 과학이 지배되는 사회구조가 형성되어 우리의 일상생활을 지배한다 할지라도 과학의 힘이 미치지 못하는 부분은 존재할 것이다.

암을 비롯한 각종 불치의 질환은 미래에 기대되는 첨단화된 의술로도 그 원인을 명확하게 규명하기 어려울 것으로 기대되고 있으며, 현재에도 뚜렷한 치료방법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환자 자신은 물론 그 가족의 정신적, 경제적 어려움이 커다란 사회적 문제로 날로 부각되고 있음은 앞서 지적한 바와 같다.

정통의술로서의 현대의술이 앞으로 해결해야 할 의료적 과제로 남아 있는 불치의 질환에 대한 치료방법을 어느 정도 제시할 수만 있다면, 그동안 정통의술의 한계로 지적되었던 상당한 부분들이 해소될 수 있을 것이나, 그러나 현재 정통의술의 한계가 의료분야에서 일반적으로 지적되고 있으며, 이를 인정하고 있는 추세에 있다.

결국, 정통의술의 한계로 인하여 대체의료를 서양의료시장에서 정통의술을 대체할 수 있는 대체적 기능으로서 점진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경향에 있으며, 앞으로 대체의료의 중요성은 제도권 내에서 활발하게 논의되리라 여겨

진다. 그러므로 정통의술과의 협력체계를 통해서 대체의료에 대한 이론적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아울러 현장에서의 주의 깊은 임상적인 관찰을 통해 이론을 보완할 수 있는 대체의료에 대한 체계적인 임상연구도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여겨진다.

대체의료의 서양인에게 정통의학의 대체적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것으로 새롭게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과 관련하여, 대체의료를 서양인에게 소개하고 알림으로써 보다 더 대체의료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심어줄 수 있는 방안이 제도적 차원에서 모색된다면, 대체의료에 대한 위상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⁸⁾

특히, 우리나라의 대체의료를 서양인에게 소개할 수 있는 방안으로서 한방관광을 들 수 있을 것이다. 2002년 월드컵 개최를 전후로 하여 한방관광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기 시작하였는데, 외국의 저명인사들에게 사상체질 요법을 비롯하여 추나요법, 심신요법 등 다양한 자연요법을 소개하고 시술한 바 있다.

우리나라의 전통문화를 체험하기 위해 주로 외국인들이 많이 찾는 경주지역에서는 올림픽을 전후하여 사상체질요법, 침시술, 요가치료, 향기요법, 황토온열치료 등 다양한 형태의 대체요법을 소개하고 시술함으로써 대체요법을 상품화하여 고부가 가치를 창출하기 위한 한방관광산업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국관광공사의 외래관광객 실태조사(2003)에 의하면, 우리나라에 입국하는 외국관광객 중 약 8.8%가 대체요법을 경험하기 위한 한방관광으로서 매년 증가 추세에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있다. 홍콩, 대만은 물론, 캐나다, 영국, 미국과 같은 서양 국가의 국적을 가진 관광객들이 한방관광에 커다란 관심을 나타내고 있어 한국형 대체요법의 세계화를 이룰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특히,

일본 관광객 중 약 30% 이상이 우리나라에서 대체요법을 경험하기를 희망하고 있어 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다양한 형태의 한방관광상품의 개발이 요구된다 하겠다.^{8,9)}

외국의 경우에도 관절 및 류마치스 등의 노인성 질환을 치료하기 위해 건강상품을 개발하여 관광자원과 연계함으로써 대체의료서비스의 고부가 가치를 창출하기 위한 체계적인 인프라 구축에 노력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에는 마사지를 겸한 온천욕을 상품화하여 이를 다른 관광자원과 연계하여 실시함으로써 미국 관광객을 비롯한 서양관광객들에게 호의적인 평가를 받고 있으며, 프랑스의 경우에는 해변가를 중심으로 해수욕을 개발하여 치료와 레저를 겸한 대체관광 상품개발에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

이와 같이 서양을 비롯한 각국들이 대체요법과 관련된 상품을 개발하여 이를 관광자원으로 활용하려는 노력은 서양 정통의술의 한계를 인식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라 여겨지며, 의료와 관광이라는 두 측면에서 대체요법의 대체적 기능을 인식하려는 흐름으로 여겨진다는 점에서 관광을 통한 대체요법의 고부가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체계적인 정책적 개발이 우리나라에서도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오늘날 급속한 산업의 성장은 경제성장과 의료기술의 발달을 가져왔으며, 이로 인해 수명의 연장을 가져와 노인인구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있다. 노인인구의 증가는 노인성 질환의 증가를 초래하여 이를 해결하는 것이 의료분야에서의 우선적인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대부분의 노인성 질환은 정통의술로서도 완치가 되지 않는 특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노인성 질환을 경험하고 있는 환자 및 그 가족은 정통의술의 대체적 기능으로 활용할 수 있는 대체요법을 치료의 수단으로서 선호하고 있다.

노인성 질환을 포함하여 암을 비롯한 불치

의 질환을 경험하고 있는 환자들은 아직 대체요법이 체계화되어 있지 않아 세계적, 지역적으로 폭넓게 분산되어 있기 때문에 각국을 여행하면서 동시에 대체요법을 경험하려는 보건관광(Health Tourism)에 주목하고 있는 추세에 있다. 그러므로 우리나라도 다음과 같은 사실에 유의하면서 대체요법을 관광상품화하는데 정책적인 배려와 사회적 관심을 가져야 할 것으로 본다.

첫째, 전문적인 연구 및 교육시설의 육성이 요구된다. 대체의료를 이론적으로 연구하고, 이를 보급시킬 수 있는 전문 연구기관의 설립운영이 요구되고 있다. 또한 관광객을 상대로 대체요법을 전문적으로 소개하고 이를 치료에 이용하게 할 수 있는 언어적 능력과 마케팅전략을 활용할 수 있는 경영마인드를 가진 전문가이드를 교육시켜 육성시킬 수 있는 전문교육기관을 설립함으로써 대체의료를 과학화시킬 수 있는 인프라 구축에 우선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또한 민간기관과 공적 기관간의 유기적인 협력체계의 형성이 요구된다 하겠다. 대체의료서비스의 제공은 민간기관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공적 기관은 관광정보를 취급하고 있으므로 민간기관이 공적 기관으로부터 유효적절한 정보를 제공받아 대체의료 서비스를 관광객에게 제공할 수 있는 상호 양자 사이의 협력체계가 이루어진다면, 바람직한 보건관광산업의 육성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하겠다.

둘째, 특성화 전략에 주력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는 현재 지방자치체가 실시되고 있으므로 지역의 특성에 맞는 대체요법을 개발하거나 육성시켜 다른 나라와 차별화할 수 있는 블루오션 전략에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셋째, 정부의 재정적인 지원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한방관광산업을 육성시키기 위한 법률적인 근거가 비록 마련되어 있다 할지라

도, 이를 실질적으로 운영해 갈 수 있는 재정적인 뒷받침이 없다면 실효를 거둘 수 없음은 자명한 이치이다. 우리나라의 대체의료시장의 규모가 영세한 점을 감안한다면, 공적 자금의 투자가 필요하다고 여겨진다. 특히, 보건관광은 다른 분야에 비해서 고부가가치가 매우 크게 작용하므로 공적 자금의 투자가치는 매우 크다 하겠다.

넷째, 적극적인 홍보가 이루어져 할 것이다. 싱가포르를 비롯한 동남아시아 국가들은 유럽과 미국을 상대로 대체의료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를 전개함으로써 보건관광산업의 육성에 정부의 우선순위를 두고 있다. 대체의료는 그 실체가 외부에 알려져 있지 않다는 점에서 실체를 알릴 수 있는 적극적인 홍보가 필수적이라 여겨진다.

문화관광부의 역할이 우리나라의 역사나 관광자원만을 소개하고 알리는 것에 그칠 것이 아니라, 대체의료를 외국에 알리고 이를 상품화시켜 수익을 창출시킬 수 있는 적극적이고 포괄적인 홍보전략으로의 전환이 요구된다 하겠다. 지방정부의 문화관광공공의 역할도 대체요법을 찾는 것에서부터 이를 개발, 육성시켜 발전시키는 적극적인 역할로의 전환과 함께 중앙정부와 연계하여 이를 홍보하는 자세가 요구된다 하겠다.

엘핀 토플러(2007)는 “우리가 현재 생활하는 공간은 IT산업에 의해 지배되고 있지만, IT산업이 종결된 이후의 생활공간은 건강산업에 의해 지배될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이는 건강이 미래의 친환경적인 성장동력산업의 핵심적인 요소가 될 수 있음을 제시한 것이라 볼 수 있을 것이다. 아직 정통의술로 치료되지 못하는 질환을 가진 관광객들은 단체관광이 아닌 개인관광으로 입국하여 개인별 대체요법에 의한 치료경험과 자연을 감상하는 생태관광이라는 경험을 동시에 체험한다는 점에서 대체의료는 친환경적인 산업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저비용 고효율성의 가치가 내재하고 있는 한방관광산업은 친환경적인 산업인 동시에 우리의 선조가 오랜 역사를 거쳐 생활경험에 의해 체득한 대체요법을 외국에 알림으로써 고수익을 창출시키는 동시에 대체의료의 이미지를 향상시킬 수 있는 미래의 동력산업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제도적인 차원에서 우리가 지니고 있는 대체요법을 찾아 이를 개발하고 발전시켜 고부가가치의 상품으로 특성화시킬 수 있는 이론적, 전략적, 체계적인 노력을 기울여 가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1. Bhattahcharya, Programs in the United States with Complementary and Alternative Medicine Education Opportunities, 2000, The Journal of Alternative and Complementary Medicine, pp. 77-90
2. Coleman Michel, et al, Trends in Cancer Incidence and Mortality, 1993, International Agency for Reserch on Cancer, pp. 787-793
3. Eisenberg, David M, et al, Trends in Alternative Medicine Use in the United States, 1997, Results of Follow-up of a National Survey
4. Weitzel MS, Eizenberg, DM, Kaptchuk TJ, Courses Involving Complementary and Alternative Medicine at US Medical Schools, 1998, Journal of the American Medical Association, 280 : 784-787
5. 조무성, 생활철학으로서의 행정학: 21세기 패러다임, 1999, 하계학술대회 발표논문집
6. 조무성, 생활행정학으로서의 한국행정학: 문제해결역동모형의 탐색, 1998, 동계학술대회 발표논문집
7. 조무성, 암환자의 삶의 질과 대체의학, 2002, 한국행정학회지 pp. 733-753
8. 최승국, 최찬호, 헬스투어리즘에 관한 연구 (한방관광을 위주로), 2005, 한중학술교류협회, pp. 257-271
9. 최찬호, 건강증진학, 신광출판사, 2005
10. 문화관광부, 2003년 관광동향에 관한 연차 보고서, 2002
11. 류종훈, 대체의학과 건강관리, 학문사, 2002
12. 최찬호, 한국의 민간의료보험 도입의 필요성에 관한 논점, 2002, 하계학술대회 논문 발표집, pp. 755-763
13. 문화관광부, 2003년 관광동향에 관한 연구, 2003
14. 정두채, 한방관광산업의 활성화 방안, 2002, 보건산업진흥원